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a large, stylized 'J' shape. The left side of the 'J' is composed of three vertical, flame-like shapes in blue, green, and grey. The right side is a solid purple vertical bar. In the center of the 'J', there is a small icon of an open book above the text 'JEJU 1952'. The entire logo is surrounded by a faint, circular watermark containing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and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강 윤 심

2010년 8월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허철수

강윤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8월

강윤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년 8월

<국문초록>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운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허철수

본 연구¹⁾는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대학생의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성별, 지역별, 전공별, 학년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지역과 서울경기지역의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68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WINDOS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인들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며,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을 6%로 설명하고 있으며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의 부족요인에서 가장 높은 14%의 설명력을 보였다.

1) 본 논문은 201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임.

둘째, 성별에 따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직업정보의 부족, 미래불안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활동과 필요한 도구의 준비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지역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필요한 도구의 준비에서 제주지역의 대학생이 서울경기지역의 대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서는 서울경기지역의 대학생이 제주지역의 대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공에 따라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생은 자기명확성의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불안, 직업정보의 부족에서 타 전공의 대학생보다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에서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의 대학생이, 흥미부족에서는 자연공학계열의 대학생이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년에 따라 대학생은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나이문제에서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고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활동과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도구의 준비는 4학년>3학년>1학년>2학년 순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관계는 나이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은 하위요인과 성별, 학년,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대학생에게 획일화된 진로상담프로그램의 적용이 아니라, 각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요인에 따라 차별적인 상담개입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그리고 진로상담프로그램과 더불어 대학생에게 자존감향상과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의 필요성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진로상담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다루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3
II 이론적 배경	5
1. 대학생의 진로발달	5
2. 진로장벽	8
3. 진로준비행동	10
4.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13
III 연구방법	15
1. 연구대상	15
2. 측정도구	16
3. 자료처리	20
IV 연구결과 및 해석	21
V 요약, 결론 및 제언	41
1. 요약	41
2. 결론	45
3. 제언	47
참고문헌	48
Abstract	52
부 록	55

표 목 차

<표 III-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대상	15
<표 III- 2> 진로장벽검사 신뢰도	18
<표 III- 3> 진로준비행동검사 신뢰도	20
<표 IV- 1>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전체)	21
<표 IV- 2>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22
<표 IV- 3> 자기명확성 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23
<표 IV- 4> 경제적 어려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24
<표 IV- 5>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25
<표 IV- 6> 직업정보의 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26
<표 IV- 7> 나이문제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27
<표 IV- 8> 신체적 열등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28
<표 IV- 9> 흥미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28
<표 IV-10> 미래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29
<표 IV-11>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	31
<표 IV-12> 대학지역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	33
<표 IV-13>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	35
<표 IV-14>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	37
<표 IV-15>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분석	39

그림 목 차

[그림 II-1] 진로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 직업탐색행동의 관계 11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만이 전부는 아니다. 직업은 개인의 정체감과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직업에서 성공을 이룬다는 것은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직업에 따라 능력 발휘의 기회, 주거지, 교우의 유형,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간의 관계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진로는 단순히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삶속에서 합리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진로탐색은 앞으로의 취업이나 취업후의 정착을 위해 중요한 발달과정이다. 특히 사회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갖는 진로탐색의 의미는 크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적성과 흥미 및 장래희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보다는 학교 서열 및 합격 위주로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입학 과정에서 진로나 직업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공과 적성간의 불일치, 불투명한 취업전망, 그에 따른 진로 불안 등의 이유로 전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군입대나 휴학등으로 진로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김선중, 2005 ; 조지혜, 2007).

따라서 진로상담 분야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을 돕기 위해 직업세계와 관련된 능력이나 흥미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달사와 특성을 고려한 진로개발 프로그램에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유정숙, 1998 ; 이진인, 1999 ; 조단비,

2003). 손은령(2001)에 의하면 지금까지 진로상담 연구들이 주로 심리적 변인들과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 등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진로선택이나 진로결정과정에서 개인 심리적 변인의 역할만을 강조하게 되면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제약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왜곡된 해석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최근 여러 연구자들(손은령, 2001 ; 김선중, 2005 ; 조지혜, 2007 ; 최숙현, 2007)은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환경적 요인이 진로 선택이나 진로결정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진로장벽” 변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진로지도나 직업상담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하는 요건은 진로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장애 지각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진로선택과 결정, 진로정보의 수집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진로준비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일 일 것이다(이명숙, 2003).

지금까지 선행연구(손은령, 2001 ; 김선중, 2005 ; 조지혜, 2007 ; 최숙현, 2007)에 의하면 진로준비행동을 진로장벽과 관련하여 밝히려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력과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하위 요인들이 다르게 존재한다. 그러므로 진로장벽을 단순한 총점의 차이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진로장벽안에서도 방향성이 다른 하위 요인들을 분류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산업구조적 특성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훨씬 압도하는 상황이고, 2차 산업인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대인 불균형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학을 졸업한 제주도내 대학생들이 제주도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장은 한정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주도내 대학생들에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한민국 면적의 1.9%를 차지하는 제주도와 우리나라의 수도이고 중심지역활을 하는 서울경기지역의 대학생들간에는 각각 다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진로상담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

초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지역별, 전공별, 학년별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고,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대학생의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성별, 지역별, 전공별, 학년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대학생의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자기명확성 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경제적 어려움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4.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5.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의 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6.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나이문제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7.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열등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8.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흥미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9.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미래불안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성별, 지역별, 전공별,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1.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2.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3.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전공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4.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진로발달,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학생의 진로발달

지난 20년 동안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직업 세계에는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1960년 ~ 197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 후반에 일단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하면 정년이 될 때까지 거기에 머무를 수 있으리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첫 취업 후 30년 ~ 40년의 안정된 경력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던 전통적 경력통로는 더 이상 직업세계의 전형이 아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조직체의 전통적 경력사다리를 오르기보다는 “벤처”와 같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보다 자유로운 작업조건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변화는 IMF이후의 경제침체로 인한 국내의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며 세계적인 추세로 보인다(김애순, 2007).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진로발달의 관점에서는 중등학교 시절에 이미 수행해야 할 진로발달과업(예를 들어 자신의 특성에 대한 고민, 직업세계의 탐구 등)을 대학 입학 이후로 미뤄왔다. 또 자신에 대한 확고한 정체감이 형성되어 있지 못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많지만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황지영(2007)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대표적인 발달과업으로는 학업 및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적응하는 것,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성취하는 것,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일 등이다. 이 중에서도 일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대학

생들의 중요한 발달과업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선택과 그에 맞는 준비를 위해서는 심리사회적 유예기간을 통해 역할실험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우리는 청소년 후기나 성인초기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하나의 직업을 선택해서 직업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의 선택은 갑작스러운 것이라기보다는 장기간의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어린 시절의 경험들, 부모나 중요인물에 대한 동일시와 모델링, 가족적 배경, 가족이나 친구들의 권유와 기대,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과 환상, 성격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애순, 2007).

진로발달에 대한 이론과 접근방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었다. 그 중에서 발달이론은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진로행동의 종단적 표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아개념을 더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특성이론이나 구조이론 등 다른 진로발달 이론과 다르다(황설영, 2005). 즉 특성이론이 직업선택을 일회적인 행위로 간주하였다면, 발달이론에서는 진로발달을 생애의 전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진로를 개인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학자들은 Ginzber, Super, Tiemam과 O'Hara 등의 발달이론가들이며 이들은 인간발달의 개념을 진로지도에 적용하여 진로발달을 개인의 전체발달의 한 측면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황지영, 2007, 재인용).

Ginzber는 진로발달의 단계를 환상적 직업선택단계, 시험적 직업선택단계, 현실적 직업선택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 시기가 포함되는 현실적 직업선택단계는 18세 ~ 22세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에 비로소 현실적인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기회뿐만 아니라 직업의 요구조건, 교육기회, 개인적 요인등과 같은 현실요인을 고려하여 타협해서 결정에 도달하게 된다. 현실적 직업선택 단계는 정서적 불안정, 개인적 문제, 재정적인 풍족함 등의 원인때문에 늦어지기도 한다. 현실적 직업선택단계는 다시 탐색단계, 구체화단계, 특수화단계로 나누게 된다. 탐색단계는 자신의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이나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단계이다. 구체화단계에서는 직업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결정과 관련된 내적·외적 요소를 종합하는 단계이다. 특수화단계는 자신이 한 결정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더욱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

다(김봉환 외, 2009, 재인용).

Super의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발달단계이다. 이는 진로발달이 일정한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되는 일련의 계속적인 과정으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로 나누었다. 이 중 대학생 시기는 탐색기 후반과 확립기 초기에 있으며, 탐색기를 통해 선택을 점점 좁혀나가고, 확립기에는 시행착오와 일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확립해나가게 된다. Super에 의하면 탐색기와 확립기에는 흥미, 가치관, 능력 등을 알아가면서 직업목표를 만들어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짜고 점점 구체적으로 선호하는 직업분야를 고려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대학생은 학교 및 여가활동시간, 시간제 등을 통해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직업탐색을 시도한다(김충기 외, 1995, 재인용).

Ginzber와 Super의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단계는 탐색단계로서, 탐색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직업에 대해 알아가며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시기에는 직업목표를 구체화하고 그에 맞는 훈련을 받아서 직업에 입문을 해야 하는 과업을 가지고 있다(김순정, 2000).

이렇듯 대학생시기에는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기회뿐만 아니라 직업의 요구조건, 교육기회, 개인적 요인등과 같은 현실요인을 고려하여 직업목표를 만들어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짜고 점점 구체적으로 선호하는 직업분야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하는 발달과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환경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의 진로를 현명하게 선택하여 계속적으로 발달함으로써, 일생동안 보람 있고 가치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변화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2. 진로장벽

진로장벽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가 시작된 초기에는 진로장벽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Crites(1969)는 직장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방해조건(thwarting conditions)'이라 칭하였으며, Fitzgerald과 그의 동료들은(1983) '장벽(barriers)' 또는 '지각된 장벽(perceived barriers)'으로 Luzzo(1997)는 '진로와 관련된 장벽(career-related barriers)'이라 명명하였다. 이후 Swanson과 Tokar(1991)에 의해 진로장벽검사(CBI : Career Barriers Inventory)가 개발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최근에는 점차 '진로장벽'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손은령, 2001, 재인용). 국내에서는 'Career barriers'를 손은령(2001)은 '진로장벽'이라 명명하고, 김은영(2001)은 '진로장애'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손은령(2001)은 직업이나 진로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들을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라 하였다.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여러 경험들 예를 들어, 취업, 진학, 승진, 직업의 지속, 가사와 직장생활의 병행, 직무 행동 등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 사건이나 사태를 의미한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김은영(200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발달과 관련된 과거의 어려움과 장애, 미래의 진로계획이나 목표성취를 위해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려움과 장애들을 진로장애로 보았다.

김선중(2005)은 개인의 진로목표 달성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해요인이라고 지각되는 것을 진로장벽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이라기보다 그러한 사실이나 상황에 대하여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진로장벽은 주관적이라는 것으로 보았다.

최숙현(2007)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진로와 관련된 계획이나 환경 또는 미래 목표의 설정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포괄적인 의미의 모든 장애들을 진로장벽으로 보았다. 그러나 진로장벽은 상황에 따라서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곧 진로장벽은 연구자에 따라 주관성을 띠는 성향이 많다고 보았다. 이러한 진로장벽은 진로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상황, 가정과 직장 나아가 미래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의 모든 준비와 실천을 가로막는 것들이다. 이른바 진로장벽이란 진로와 관련된 여러 방해물들, 곧 넓은 의미의 총체적 진로장애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내담자가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이해하기 위하여 Lent 등(1987)은 사회인지이론을 제안하였다.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는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선택 및 진로실행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적 요인들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외적 요인들이 진로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정도는 객관적 요인에 의한 조건자체보다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와 같은 개인의 주관적 지각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다. 즉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환경을 받아들일 때, 환경 안에서 각 개인의 적극적 역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김선중, 2005, 재인용).

London(1997)은 진로장벽이 개인이나 직무환경 혹은 이들 간의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사람들이 이러한 진로장벽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진로장벽이 결국 주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로장벽에 대한 인지적 과정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졌다. 진로장벽이 개인에 따라 미치는 정서적 영향이 다르고, 이러한 장벽에 대처한다는 것 자체가 우울, 불안, 공포와 같은 강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임을 지적하고 진로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진로장벽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진로장벽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최숙현, 2007, 재인용).

이와 같이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관련 목표를 향하여 계획에 따라 여러 경험들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으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안이 있으며, 진로장벽은 객관적 요인에 의한 조건자체보다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와 같은 개인의 주관적 지각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로장벽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이란 개인의 진로목표달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실제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행동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또한 진로결정 이후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정기홍, 2007).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적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이다.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관심은 김봉환(1997)에 의해서 진로분야의 필수적인 한 가지 탐구영역으로서 개념화가 시도되었다. 그리고 김봉환은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에 있어서 인지나 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여 진로문제 연구에 새로운 하나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이후 이와 관련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봉환은 진로준비행동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정보수집활동이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는 물론이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현황, 전망, 입직 방법, 필수요건, 승진경로, 작업환경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활동은 매우 중요한 진로준비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다. 자기가 목표한 직업에 입직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혹은 교재 등을 구입하는 것이다. 또는 각 직업에서 원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획득하는 활동들이다. 셋째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과정으로,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제 활동을 말한다(김봉환, 1997).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척도가 개발되면서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들이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며, 아울러 실제 수행되고 있는 진로지도나 진로 상담 면에서도 진로의식성숙이나 진로정체감 등의 인지나 태도적 차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외에도 진로에 관련된 준비행동, 즉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다(윤주영, 2000 ; 김남진, 2003).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의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진로준비행동과 유사한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경(2004)의 연구에서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위하여 직업탐색 행동 혹은 구직행동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진로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 그리고 직업탐색행동의 관계를 [그림 II-1]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II-1] 진로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 직업탐색행동의 관계

(이제경, 2004)

이제경(2004)은 ‘직업탐색행동’이란 대학생의 취업준비 특성으로 단순히 잠재적으로 취업가능성이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과정을 의미하며, ‘진로준비행동’은 장기적으로 진로에 관한 의사결정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에 대해 대학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회사나 분야에 취업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는 일련의 구체적 행위를 ‘취업준비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직업탐색은 개인이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 대안들을 검토하고 확장하며, 그 중에서 결정을 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를 취업을 원하는 개인이나 개인을 채용할 기업에게나 모두 중요한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직업탐색은 잠재적으로 취업가능성이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과정으로서 포괄적 탐색과 집중적 탐색으로 구분되는데 포괄적 탐색은 어떤 직업 기회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집중적 탐색은 특정 직업기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유미정, 2008).

취업준비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제경(2004)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의 개념은 '직업탐색'보다 좀 더 포괄적인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혹은 일하고자 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준비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행동도 취해진다고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진로준비행동수준을 나타냈다(김봉환, 1997 ; 이제경, 1997 ; 장기명, 1998 ; 윤주영, 2000 ; 최동선, 2003).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의 진로상담이나 교육에서 행동적 요소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행동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신의 적성 및 능력이 그 직업에 적합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직업이란 단순히 경제적 욕구만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닌 자아실현의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 직업을 갖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면서 더 구체적으로 직업에 대한 근무조건 및 보수, 승진여부, 앞으로의 전망 등의 정보도 입수해야 할 것이다. 즉 자신과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직업을 갖기 위한 조건 및 자기가 노력해야 할 부분을 파악한 후,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로준비행동은 어느 시기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이전부터 생각하고 경험해 온 토대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은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의 준비,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나 취업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직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취업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으며, 관련 분야의 직업인을 직접 만나 보는 방법도 더 많은 직업정보를 얻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학생에게 진로준비행동은 학업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4.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진로장벽은 진로포부의 발달 및 진로결정과 관련되며 진로선택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및 다른 유사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결과는 어떤 사람에게서는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의 사결정과정을 방해하지만, 다른 사람에게서는 지각된 진로장벽이 합리적인 진로탐색과 진로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Ginzberg(1951)는 직업선택이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결정이며, 남성의 진로가 단순하고 직선적인데 비해 여성의 진로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했다(김선중, 2005,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 김계현(1995)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은 여러 진로장벽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김창대(1999)도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전생애적 관점에서 결혼과 관련된 여러 진로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진로장벽의 지각에 성차가 존재하므로 성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Swanson 등(1991)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장애의 하위유형들에서 일관적인 성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여러 진로장애들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진로와 관련하여 더 많은 장벽을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최숙현, 2007, 재인용).

손은령(2001)도 우리나라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내용과 요인구조를 밝힌 연구에서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남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내용과 지각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진로장벽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은영(2001)은 앞의 연구들과는 달리 한국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 전체 진로장애 평균점수에서 통계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고 하였다.

이기학(200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 진로장벽에서는 성별차가 없으나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 부족에서는 여학생이, 필요성 인식부족에서는 남학생이 더 높은 진로장벽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명숙(2003)도 진로장벽 총점 및 하위 요인에서 여자 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평균에 대한 남녀차이의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 차가 나타났다. 9가지 하위요인에서도 나이문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장벽요인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진로장벽을 더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김선중(2005)은 진로장벽 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하여 상하집단으로 나눈 후, 네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삶의 의미, 희망에 대하여 각각 일원변량분석을 통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고 동시에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고 동시에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집단에서는 삶의 의미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희망 수준은 진로준비행동이 높고 진로장벽이 낮은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진로준비행동이 낮고 진로장벽이 높은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손은령(2001)의 주장과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김선중은 전체 진로장벽에서는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 중 성격문제에서는 여학생이, 흥미부족과 나이문제 요인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장벽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진로장벽의 전체점수 뿐 아니라 하위요인을 설정하여 사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장벽들을 대처하고 지각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진로상담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생각을 분석하기 위해 제주지역과 서울경기지역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6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한 달(2009년 11월 1일 ~ 11월 30일)에 걸쳐 실시되었고, 설문지는 교양과목시간에 강의담당교수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대상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자	288	41.8
	여자	400	58.1
	무응답	1	.1
대학지역	제주지역	340	49.3
	서울경기지역	349	50.7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314	45.6
	자연공학계열	188	27.3
	예체능계열	186	27.0
	무응답	1	.1
학 년	1학년	114	16.5
	2학년	186	27.0
	3학년	279	40.5
	4학년	108	15.7
	무응답	2	.3
계	689	100.0	

2. 측정도구

1) 진로장벽검사

진로장벽과 관련된 연구들을 실시하거나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진로장벽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유미정, 2008). 그러나 진로장벽과 관련된 여러 경험적 연구들에서 진로장벽은 대개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이용하여 측정한다(손은령, 2001).

첫 번째 방법은 진로결정이나 진로성숙을 재는 척도의 한 유목에 포함된 진로장벽문항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도구는 원래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의 타당성과 일반화 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설문지나 사고나열기법을 통해 지각된 장벽을 수집하고 이를 유목화하는 방법이다. 이는 두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일률적으로 순서와 상관없이 지각되는 모든 진로장벽들을 나열하게 하여 그 수를 세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각된 진로장벽들의 순위를 매기도록 하여 그 지각의 강도 및 수준을 가늠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연구자들이 필요에 의해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독자적인 측정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다(손은령, 2001).

Swanson과 Tokar(1991)에 의해서 개발된 '진로장벽 검사(CBI: Career Barriers Inventory)'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사도구이며, 이 검사 도구는 다른 진로장벽 검사도구에 비해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개발되었기에 타당도와 신뢰도가 양호하다(최숙현, 2007,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진로장벽 검사도구로는 손은령(2001)이 개발한 '진로장벽 검사(여자대학생용)'과 김은영(2001)이 개발한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장벽검사는 김은영(2001)이 개발한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를 사용하였다.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검사는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애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의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총 2,584명을 대상으로 얻어진 응답 자료를 분석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김은영은 이 검사를 위해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서 진로장벽 문항을 추출하였고, 이를 20개의 유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유목마다 4~12개씩 문항을 제작하여 총 155개의 문항을 만들어 전문가들의 검토와 예비조사를 거쳐 95개의 예비문항을 선별하였다. 예비로 제작된 95개의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결과를 고려하여 45문항의 9요인 척도로 재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는 교차타당도를 확보하고 준거 타당도와 공존타당도도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 검사는 총 45문항 9개의 하위요인(① 대인관계의 어려움, ② 자기명확성 부족, ③ 경제적 어려움, ④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⑤ 직업정보의 부족, ⑥ 나이문제, ⑦ 신체적 열등감, ⑧ 흥미부족, ⑨ 미래불안)으로 이루어졌으며, Likert 4점(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거의 그렇지 않다, 3 = 대체로 그렇다, 4 = 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었다. 범위는 45점 ~ 1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하고 있는 상태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장벽을 지각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동일한 도구를 가지고 최숙현(2007)은 국립대와 사립대 4년제 대학생 275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신뢰도(Cronbach α)가 .94로 나타났으며, 김선중(2005)는 서울, 경기,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의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486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신뢰도(Cronbach α)가 .85로 나타났다.

연구자가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진로장벽검사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대인관계의 어려움	2,12,22*,32,41	5	.88
자기명확성 부족	1,10,11,20,21,31,40	7	.89
경제적 어려움	7,17,27,37,45	5	.9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3,13,23,33,42	5	.89
직업정보 부족	4,14*,24,34,43	5	.89
나이문제	9,19,29,39	4	.90
신체적 열등감	8,18,28,38	4	.90
흥미부족	5,15,25,35	4	.89
미래불안	6,16,26,30,36,44	6	.90
진로장벽		45	.88

* : 역채점문항

2)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의 측정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관심이 매우 미약하고 실제로 이에 관한 측정을 시도하는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김봉환(1997)은 이와 같은 현상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첫째는 행동차원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로상담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가 주로 진로성숙에 있었던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인지나 정서적인 측면에 많은 관심을 두었을 뿐 행동차원의 중요성은 그다지 부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측정문제도 도외시되어 온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행동의 측정, 그 자체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다. 이는 곧 행동을 과연 측정할 수 있는냐의 문제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유미정, 2008).

진로준비행동은 측정하는 도구로는 Vocational Exploration Behavior Checklist (VEBC; Krumbolts, 1963)와 Vocational Checklist(VC, Aiken과 Johnston, 1973),

Career Exploration Survey(CES, Stumpf, Colarelli 와 Hartman, 1983)가 있으며,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검사, 서진숙(1998)의 진로탐색행동검사 등이 있다 (김봉환, 1997, 재인용 ; 조경애, 2005).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검사지에 이명숙(2002)이 두 문항(8번, 12번)을 추가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의 측정을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직접 제작한 경우이다. 그는 진로준비행동 검사의 제작을 위해서 몇 가지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진로상담과 관련된 사례들을 모아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진로를 결정했다고 확신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에 이를 때까지 수행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진술하게 하는 면담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는 특정한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진로 혹은 직업을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활동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이에 대하여 5가지 이상의 구체적인 행동을 쓰도록 하여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16개의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진로준비행동 검사지는 신뢰도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명숙(2002)은 최근 들어 인터넷 정보 사이트가 많이 생겨나고 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가 활성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 검사에 두 문항(8번과 12번)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총 18문항 3개의 하위요인(① 정보수집활동 ② 필요한 도구의 준비 ③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 Likert 4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거의 그렇지 않다, 3 = 대체로 그렇다, 4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범위는 18 ~ 7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김봉환(1997)은 사범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신뢰도(Cronbach α)가 .86으로 나타났으며, 김남홍(2001)은 검사의 신뢰도(Cronbach α)가 .86으로 나타났으며, 이명숙은 검사의 신뢰도(Cronbach α)가 .88로 나타났다.

연구자가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별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진로준비행동검사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정보수집활동	4,5,6,7,8,17	6	.90
필요한 도구의 준비	9,13,14,15,16	5	.92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	1,2,3,10,11,12,18	7	.91
진로준비행동		18	.82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검사척도를 연구 대상자들에게 실시하였고, 본 연구는 WINDOS SPSS 12.0프로그램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들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셋째,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의 단순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전체)

N=689

	독립변수	계수(B)	계수의 표준오차	β	t
전체	상수	2.99	.09		31.71**
	진로장벽	-.29	.04	-.25	-6.74**
R=.25(a) 수정된 R 제곱=.06 F=45.39 P= .000					

** p<.01

<표 IV-1>과 같이 전체를 대상으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요인으로 구성된 회귀식은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하는데 유의미(p<.01)하며, 이 요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데 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로장벽($\beta=-.25$)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숙현(2007)이 전체를 대상으로 단순회귀분석 결과인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영향력을 미친다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처럼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는 대학생들이 좌절감이나 자신감부족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1)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N=689

	독립변수	계수(B)	계수의 표준오차	β	t
대인관계의 어려움	(상수)	2.65	.07		39.98**
	대인관계의 어려움	-.14	.03	-.17	-4.56**
	R= .17	교정 R ² = .03	F= 20.78	P= .000	

** p<.01

<표 IV-2>와 같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요인으로 구성된 회귀식은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하는데 유의미(p<.01)하며, 이 요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데 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로

장벽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의 어려움($\beta=-.17$)이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선중(2005)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중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지각하면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자기명확성 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자기명확성 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자기명확성 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N=689

	독립변수	계수(B)	계수의 표준오차	β	t
자기명확성부족	(상수)	2.81	.08		36.59**
	자기명확성부족	-.20	.03	-.22	-5.99**
	R=.22 교정 R ² = .05		F= 35.84		P= .000

** p<.01

<표 IV-3>과 같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자기명확성 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자기명확성 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요인으로 구성된 회귀식은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하는데 유의미(p<.01)하며, 이 요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데 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명확성의 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로

장벽의 하위요인인 자기명확성의 부족($\beta=-.22$)이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숙현(2007)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중 자기명확성의 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자기명확성의 부족을 많이 지각하면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경제적 어려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경제적 어려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경제적 어려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N=689

	독립변수	계수(B)	계수의 표준오차	β	t
경제적 어려움	(상수)	2.60	.07		36.96**
	경제적 어려움	-.10	.03	-.13	-3.35**
R= .13		조정 R ² = .02	F= 11.21	P= .000	

** p<.01

<표 IV-4>와 같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경제적 어려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경제적 어려움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요인으로 구성된 회귀식은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하는데 유의미(p<.01)하며, 이 요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데 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경제적 어려움($\beta=-.13$)이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지각하면 지각할 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4)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N=689

	독립변수	계수(B)	계수의 표준오차	β	t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상수)	2.58	.07		35.47**
	중요한타인과의갈등	-.11	.03	-.12	-3.26**
	R= .12 교정 R ² = .01		F= 10.65		P= .000

** p<.01

<표 IV-5>과 같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요인으로 구성된 회귀식은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하는데 유의미($p<.01$) 하며, 이 요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데 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beta=-.12$)이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을 많이 지각하면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5) 직업정보의 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의 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직업정보의 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N=689

	독립변수	계수(B)	계수의 표준오차	β	t
직업정보의 부족	(상수)	3.14	.08		41.35**
	직업정보의 부족	-.33	.03	-.37	-10.48**
R= .37		조정 R ² = .14	F= 109.79	P= .000	

** p<.01

<표 IV-6>과 같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의 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의 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요인으로 구성된 회귀식은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하는데 유의미(p<.01)하며, 이 요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데 1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정보의 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의 부족($\beta=-.37$)이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선중(2005)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의 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의 부족을 많이 지각하면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6) 나이문제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나이문제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나이문제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N=689

	독립변수	계수(B)	계수의 표준오차	β	t
	(상수)	2.46	.06		41.97
나이문제	나이문제	-.05	.03	-.07	-1.79
	R= .07	교정 R ² = .00	F= 3.20		P= .074

<표 IV-7>과 같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나이문제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나이문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7) 신체적 열등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열등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신체적 열등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N=689

	독립변수	계수(B)	계수의 표준오차	β	t
신체적 열등감	(상수)	2.47	.06		43.68
	신체적등감	-.06	.03	-.08	-1.20
	R= .076 교정 R ² = .004 F= 3.978 P= .046				

<표 IV-8>과 같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열등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열등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8) 흥미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흥미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흥미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N=689

	독립변수	계수(B)	계수의 표준오차	β	t
흥미부족	(상수)	2.74	.07		40.32**
	흥미부족	-.18	.03	-.21	-5.68**
	R= .21 교정 R ² = .04 F=32.53 P= .000				

** p<.01

<표 IV-9>와 같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흥미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흥미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요인으로 구성된 회귀식은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하는데 유의미($p < .01$)하며, 이 요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데 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흥미부족($\beta = -.21$)이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선중(2005)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중 흥미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흥미부족을 많이 지각하면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9) 미래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미래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미래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N=689					
	독립변수	계수(B)	계수의 표준오차	β	t
미래불안	(상수)	2.79	.08		32.29**
	미래불안	-.18	.03	-.21	-5.68**
		R= .21	교정 R ² = .04	F= 32.30	P= .00

** $p < .01$

<표 IV-10>과 같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미래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미래불안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요인으로 구성된 회귀식은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하는데 유의미($p < .01$)하며, 이 요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데 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미래불안($\beta = -.21$)이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숙현(2007)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중 미래불안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미래불안을 많이 지각하면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 대학생의 성별, 전공별, 지역별, 학년별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

1)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

구분	남학생(N=288)		여학생(N=400)		t값
	M	SD	M	SD	
대인관계의어려움	1.95	.61	2.18	.54	-5.26**
자기명확성부족	2.16	.58	2.32	.48	-3.70**
경제적어려움	2.22	.60	2.31	.57	-2.10*
중요한타인과의갈등	1.97	.57	2.02	.52	-.97
직업정보의부족	2.23	.53	2.41	.52	-4.56**
나이문제	1.91	.64	1.95	.62	-.75
신체적열등감	1.71	.63	1.79	.56	-1.83
흥미부족	2.02	.57	2.04	.53	-.56
미래불안	2.30	.60	2.49	.54	-4.47**
진로장벽	2.07	.45	2.20	.36	-3.89**
정보수집활동	2.37	.55	2.50	.57	-2.87*
필요한도구의준비	2.20	.61	2.29	.57	-2.11*
목표달성을위한사회적노력	2.35	.49	2.42	.50	-1.90
진로준비행동	2.31	.47	2.40	.47	-2.68*

* p<.05, ** p<.01

무응답=1

<표 IV-11>과 같이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에서는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의 어려움(남학생 M=1.95, 여학생 M=2.18), 자기명확성의 부족(남학생 M=2.16, 여학생 M=2.32), 직업정보의 부족(남학생 M=2.23, 여학생 M=2.41), 미래불안(남학생 M=2.30, 여학생 M=2.49)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p<.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명확성의 부족, 직업정보의 부족, 미래불안에서 진로장벽을 많이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여학생(M=2.31)이 남학생(M=2.22)보다 높게 나타나(p<.05)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

장벽을 많이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서는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활동(남학생 $M=2.37$, 여학생 $M=2.50$,)과 필요한 도구의 준비(남학생 $M=2.20$, 여학생 $M=2.29$)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p<.05$)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기홍(2007)의 연구결과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의 부족, 미래불안,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과 일부분 일치하고, 모든 부분에서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진로장벽을 많이 느낀다는 김은영(2001)과 이연미(200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종걸(2008)의 경호전공대학생의 진로장벽의 차이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자기명확성의 부족과 직업정보의 부족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활동과 필요한 도구의 준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정기홍(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김봉환(1997)과 이제경(2004)의 연구에서도 진로준비행동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하고 있다는 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명숙(2003)의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에서 성별의 차이가 없다는 것과는 다른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고 진로준비행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여학생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취업을 준비하면서 사회속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차별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진로준비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대학지역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

대학생의 대학지역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2> 대학지역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

구분	제주지역		서울경기지역		t값
	(N=340)		(N=349)		
	M	SD	M	SD	
대인관계의어려움	2.12	.58	2.05	.58	.14
자기명확성부족	2.22	.52	2.28	.54	-1.39
경제적어려움	2.29	.56	2.25	.61	1.10
중요한타인과의갈등	1.98	.53	2.02	.55	-.83
직업정보의부족	2.32	.53	2.34	.52	-.50
나이문제	1.96	.62	1.92	.63	.88
신체적열등감	1.77	.58	1.74	.60	.46
흥미부족	2.00	.53	2.06	.59	-1.29
미래불안	2.40	.58	2.42	.56	-.45
진로장벽	2.14	.40	2.15	.41	-.13
정보수집활동	2.41	.53	2.48	.60	-1.46
필요한도구의준비	2.31	.60	2.20	.58	2.37*
목표달성을위한사회적노력	2.35	.48	2.43	.50	-2.15*
진로준비행동	2.36	.47	2.37	.48	-.34

* p<.05

<표 IV-12>와 같이 대학지역에 따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에서 제주지역의 대학생이 서울 경기지역의 대학생에 비해 진로장벽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자기명확성의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의 부족, 흥미부족, 미래불안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의 대학생이 제주지역의 대학생에 비해 진로장벽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대학지역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에서는 필요한 도구의 준비에는 제주지역의 대학생(M=2.31)이 서울경기지역의 대학생(M=2.20)에 비해 높게 나타나($p<.05$)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제주지역의 대학생이 필요한 도구의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서는 서울경기지역의 대학생(M=2.43)이 제주지역의 대학생(M=2.35)에 비해 높게 나타나($p<.05$)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서울경기지역의 대학생이 제주지역의 대학생보다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지역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장벽은 대학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은 대학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본인이 필요로 한다면 모든 지역의 직업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진로장벽은 지역적인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졸업을 앞두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여건을 고려하여 취업을 준비할 때에는 지역적인 여건들이 고려될 것이다. 즉, 제주지역의 대학생은 한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과정을 더 많이 하고, 서울경기지역의 대학생은 많은 일자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

3)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

대학생의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3>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

구분	인문사회 (N=314)		자연공학 (N=188)		예체능 (N=186)		F값
	M	SD	M	SD	M	SD	
	대인관계의어려움	2.12	.57	2.12	.64	2.00	
자기명확성부족	2.31	.52	2.27	.55	2.13	.52	6.71**
경제적어려움	2.30	.58	2.21	.52	2.28	.64	1.76
중요한타인과의갈등	2.06	.53	2.02	.53	1.87	.54	6.16**
직업정보의부족	2.41	.53	2.32	.53	2.23	.51	5.26**
나이문제	1.96	.62	1.90	.61	1.95	.65	1.13
신체적열등감	1.75	.57	1.75	.58	1.77	.63	.29
흥미부족	2.06	.53	2.09	.57	1.93	.54	4.22*
미래불안	2.50	.54	2.38	.60	2.30	.56	6.23**
진로장벽	2.19	.38	2.14	.42	2.07	.42	5.43**
정보수집활동	2.47	.60	2.41	.51	2.44	.55	1.07
필요한도구의준비	2.22	.58	2.27	.59	2.30	.60	.88
목표달성을위한 사회적노력	2.37	.47	2.37	.49	2.43	.53	.81
진로준비행동	2.35	.47	2.35	.45	2.39	.50	.33

* p<.05, ** p<.01

무응답 = 1

<표 IV-13>과 같이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자기명확성 부족(인문사회계열 M=2.31, 자연공학계열 M=2.27, 예체능계열 M=2.13),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인문사회계열 M=2.06, 자연공학계열 M=2.02, 예체능계열 M=1.87), 직업정보의 부족(인문사회계열 M=2.41, 자연공학계열 M=2.32, 예체능계열 M=2.23), 미래

불안(인문사회계열 M=2.50, 자연공학계열 M=2.38, 예체능계열 M=2.30)로 인문사회계열>자연공학계열>예체능계열 순으로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인문사회계열(M=2.12)과 자연공학계열(M=2.12)이 예체능계열(M=2.0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5$), 흥미부족의 요인에서는 자연공학계열(M=2.09)이 인문사회계열(M=2.06)과 예체능계열(M=1.93)보다 높게($p<.05$)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전공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생은 자기명확성의 부족과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의 부족, 미래불안에서 타 전공의 대학생보다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에서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의 대학생이, 흥미부족에서는 자연공학계열의 대학생이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분야별로 학습되고 교육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요인에서 진로장벽을 느끼고 것으로 파악된다.

4)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4>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

구분	1학년 (N=114)		2학년 (N=186)		3학년 (N=279)		4학년 (N=108)		F값
	M	SD	M	SD	M	SD	M	SD	
	대인관계의 어려움	2.16	.57	2.11	.63	2.04	.55	2.10	
자기명확성 부족	2.26	.57	2.30	.56	2.23	.52	2.23	.55	.57
경제적어려움	2.21	.54	2.20	.55	2.32	.60	2.33	.63	1.70
중요한 타인과의갈등	1.94	.51	2.00	.52	2.02	.55	2.01	.56	.58
직업정보의 부족	2.36	.54	2.38	.53	2.34	.53	2.20	.49	2.19
나이문제	1.81	.59	1.88	.62	1.98	.61	2.03	.66	4.58**
신체적열등감	1.81	.55	1.77	.59	1.72	.70	1.74	.60	1.57
흥미부족	1.98	.57	2.04	.57	2.04	.54	2.04	.53	.32
미래불안	2.35	.55	2.41	.62	2.44	.53	2.41	.61	.53
진로장벽	2.13	.40	2.15	.42	2.15	.39	2.14	.44	.28
정보수집활동	2.24	.57	2.37	.54	2.49	.54	2.65	.58	8.97**
필요한도구의 준비	2.13	.58	2.09	.59	2.33	.56	2.46	.58	9.64**
목표달성을 위한사회적노력	2.22	.52	2.30	.46	2.43	.45	2.58	.50	9.98**
진로준비행동	2.20	.49	2.26	.463	2.42	.44	2.57	.47	12.46**

** p<.01

무응답 = 2

<표 IV-14>와 같이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나이문제는 4학년(M=2.03), 3학년(M=1.98), 2학년(M=1.88), 1학년(M=1.81)순으로 나타나($p<.01$),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이문제에서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활동과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도구의 준비는 4학년>3학년>1학년>2학년 순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나이문제에서 4학년>3학년>2학년>1학년 순으로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고,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활동과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도구의 준비는 4학년>3학년>1학년>2학년 순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기홍(2007)의 연구결과인 나이문제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장벽을 많이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손은령·손진희(2005)의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이 학년이라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이주희(2004)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진취적이라는 결과와 동일하다. 김종걸(2008)은 경호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에 따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나이문제에서 2학년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은 4학년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학년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나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학년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학년이 높을수록 나이문제에 따라 진로장벽의 차이를 많이 지각할 것이다. 그리고 졸업을 앞둔 4학년이거나 졸업이 가까울수록 타 학년에 비해 사회적으로 자립을 해야 하므로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3.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분석

1)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분석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분석

N=689

	정보수집 활동	필요한도구의 준비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노력	진로준비 행동
대인관계의 어려움	-.12**	-.13**	-.21**	-.17**
자기명확성 부족	-.15**	-.22**	-.21**	-.22**
경제적 어려움	-.10**	-.12**	-.11**	-.13**
중요한 타인과의갈등	-.10*	-.12**	-.10**	-.12**
직업정보의 부족	-.30**	-.35**	-.30**	-.37**
나이문제	-.01	-.07	-.11**	-.07
신체적열등감	-.05	-.80*	-.07	-.08*
흥미부족	-.18**	-.20**	-.17**	-.21**
미래불안	-.13**	-.21**	-.21**	-.21**
진로장벽	-.18**	-.24**	-.24**	-.25**

* p< .05, ** p<.01

<표 IV-15>와 같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 상관관계($r=-.25$) 보이고 있으며, 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진로장벽이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관계는 나이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이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직업정보의 부족($r=-.37$)에서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에서 나이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는 진로장벽을 많이 느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선중(2005)의 진로장벽을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다는 결과와 동일하며, 유미정(2008)이 전문대학의 비서학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간의 부적인 상관관계라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생의 합리적인 진로탐색을 도울 수 있는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변인으로 진로장벽을 설정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대학생의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성별, 지역별, 전공별, 학년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밝히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이 설정하였다.

가설 1 :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자기명확성 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경제적 어려움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4.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5.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의 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6.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나이문제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7.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열등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8.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흥미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9.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미래불안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성별, 지역별, 전공별,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1.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2.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3.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전공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4.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과 서울경기지역의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68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진로장벽척도는 김은영(2001)이 개발한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로, 총 45문항 9개의 하위요인으로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검사의 하위요인은 대인관계의 어려움(5문항), 자기명확성 부족(7문항), 경제적 어려움(5문항),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5문항), 직업정보부족(5문항), 나이문제(4문항), 신체적 열등감(4문항), 흥미부족(4문항), 미래불안(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척도는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검사지에 이명숙(2002)이 두 문항(8번, 12번)을 추가한 총 18문항 3개의 하위요인으로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검사의 하위요인으로는 정보수집활동(6문항), 필요한 도구의 준비(5문항),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처리는 WINDOS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 둘째, 변인들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 셋째,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을 6%로 설명하고 있으며, $F=45.39$ 이고, $p<.0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리고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F=20.78$, $p<.01$, 자기명확성의 부족은 $F=35.84$, $p<.01$, 경제적 어려움은 $F=11.21$, $p<.01$,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은 $F=10.65$, $p<.01$, 직업정보의 부족은 $F=109.79$, $p<.01$, 흥미부족은 $F=32.53$, $p<.01$, 미래불안은 $F=32.30$, $p<.01$ 수

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리고 이러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정보의 부족요인에서 가장 높은 14%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로써 가설 1-1, 1-2, 1-3, 1-4, 1-5, 1-8, 1-9는 긍정되었고, 가설 1-6, 1-7은 부정되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에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의 어려움($t=-5.26, p<.01$), 자기명확성의 부족($t=-3.70, p<.01$), 경제적 어려움($t=-2.10, p<.05$), 직업정보의 부족($t=-4.56, p<.01$), 미래불안($t=-4.47, p<.01$)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활동($t=-2.87, p<.05$)과 필요한 도구의 준비($t=-2.11, p<.05$)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고 있으면서 진로준비행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2-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셋째, 대학지역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에서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필요한 도구의 준비($t=2.37, p<.05$)에서 제주지역의 대학생이 서울경기지역의 대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t=-2.15, p<.05$)에서는 서울경기지역의 대학생이 제주지역의 대학생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2-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넷째,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이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생은 자기명확성의 부족($F=6.71, p<.01$),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F=6.16, p<.01$), 직업정보의 부족($F=5.26, p<.01$), 미래불안($F=6.23, p<.01$)에서 타 전공의 대학생들보다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F=2.76, p<.05$)에서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의 대학생이, 흥미부족($F=4.22, p<.05$)에서는 자연공학계열의 대학생이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2-3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다섯째,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이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나이문제($F=4.58, p<.01$)에서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에서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활동($F=8.97, p<.01$)과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F=9.98, p<.01$)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도구의 준비($F=9.64, p<.01$)는 4학년 > 3학년 > 1학년 > 2학년 순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2-4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여섯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장벽이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관계는 나이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모두 부적 상관관계($r=-.25, p<.01$)를 보이고 있으며, 직업정보의 부족($r=-.37, p<.01$)에서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써 가설 3은 긍정되었다.

2. 결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자기명확성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의 부족, 흥미부족, 미래불안은 부적 영향으로써 진로장벽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직업정보가 부족할 경우에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시에는 대학생들의 직업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교육함으로써 대학생들이 느끼는 진로장벽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성별의 차이가 있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직업정보의 부족, 미래불안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리고 진로준비행동

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활동과 필요한 도구의 준비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할때에는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적합한 각각의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학지역에 따라 진로장벽은 지역적인 차이가 없고 진로준비행동에서는 지역적 차이가 있다. 즉,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필요한 도구의 준비에서 제주지역의 대학생이 서울경기지역의 대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서는 서울경기지역의 대학생이 제주지역의 대학생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을 위해서는 지역에 따른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넷째, 전공에 따라서 진로장벽은 차이가 있고, 진로준비행동은 차이가 없다.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들은 자기명확성의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의 부족, 미래불안에서 타 전공의 대학생보다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에서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의 대학생이, 흥미부족에서는 자연공학계열의 대학생이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고 있다. 따라서 전공별로 진로장벽을 다르게 느끼고 있으므로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 해소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차이가 있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나이문제에서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고,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활동과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도구의 준비는 4학년>3학년>1학년>2학년 순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하고 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가면 진로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진로장벽도 많이 느끼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취업준비를 위한 진로준비행동도 많이 하고 있으므로 학년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여섯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나이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모두 부적상관관계가 있고, 직업정보의 부족에서 가장 높은 부적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좌절감을 느끼면서 진

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상담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는 대학생들에게 자존감향상과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첨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제언

본 연구 결과를 가지고 후속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일반화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지역과 서울경지역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여러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한다면 일반화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검사는 반응태도에 따라 연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면접법이나 관찰법, 사례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활용한다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상담모델 개발의 기초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진로상담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있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다루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제주지역의 각 대학간 비교연구를 통하여 제주지역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한다면 제주지역의 대학생을 위한 적절한 진로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계현(1995). 상담심리학. 서울 : 학지사.
- 김남진(2003).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홍(2001).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2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 정철영 · 김병석(2009). 학교진로상담. 학지사.
-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순정(2007). 대학생의 진로발달 유형과 심리적 독립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순(2007).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시그마프레스.
- 김은영(2001). 한국대학생 진로탐색 장애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걸(2008).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창대(1999). 대학에서의 진로상담의 과제와 전망. 한국진로상담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 부산.
- 김충기 · 김병숙(1995). 진로상담: 기술과 기법. 현인시스템.
- 서진숙(1998).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유진(2007). 진로장애와 낙관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 · 손진희(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사회 인지적 진

- 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7 NO. 2.
- 우영지(2007). 여대생의 개인특성에 기초한 다중역할계획태도 군집유형에 따른 진로장벽지각 수준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미정(2008).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학 비서학 전공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숙(1998). 진로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주영(2000). 진로결정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 및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건인(1999). 대학생의 발달특성과 개인적 문제 및 지도. 학생지도연구 20. 원광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이기학(2003). 대학생의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미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명숙(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국제상담대학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식(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 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미(2001). 대학생의 진로발달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제경(1997).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발달의 대학전공별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제경·김동일(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발달적 특성. 청소년상담연구. 제12권.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주희(2004).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연구. 청소년복지연구. Vol.6. No.1.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장기명(1998).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진로결정수준·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연구. 원광대학교 학생지도연구. Vol.- No.19, 원광대학교학생지도연구소
- 정기홍(2007).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 구조모형 검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경애(2005). **지각된 가정환경양식이 남·여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 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단비(2003). **전문대학 여학생의 직업 및 교육 포부의 발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아(2006). **여대생의 진로개발 멘토링 프로그램**.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지혜(2007).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동선(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애착간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숙현(2007).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설영(2005). **문제해결검사의 타당화 연구 :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지영(2007).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rites, J.O(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 McGraw-Hill.
- Fitzgerald, L.F., Fassinger, R.E.,(1983). Theoretical advance sin the study of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W. B. Walsh, & S. H. Osipow(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rch and practice*.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Ginzberg E.(1951) *Occupational Choic : An Approach to General Theor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nt, R.W., & Hackett, G.(1987), Career self- efficacy:Empirical status and fut ure dire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 London, M(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 Amodel of cognitive and emoti onal proces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

areer Development, 24(1). 25-38.

Luzzo, D.A.(1997). *Correlates of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Swanson, J. L., & Toker, D. M.(1991).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 Abstract >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Kang, Yun Sim

Supervised by professor, Huh, Chul Soo

The purpose of this study¹⁾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this study the following questions are set up.

1. How do career barriers of college students affect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 How are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different in gender, region, major, year?
3.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barriers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order to solve these questions 698 undergraduate students in Jeju and Seoul-Gyeonggi provinces participated in this survey questions in terms of the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sing WINDOS SPSS 12.0 program,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s explained 6% by the career barriers and

¹⁾ This study is for master's degree, and it is submitted on Aug, 2010 to the committee of post graduate school of Jeju university.

the lack of job information is explained 14% which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mong sub-factors of career barriers.

Second, according to gender, female students perceive career barriers much more than male students regarding the difficul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the lack of self clarification, the economic difficulty, the lack of job information, the anxiety of the future. Moreover, as far as the activity of information gathering and necessary tools preparation are concerned, female students show much mor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an male students.

Third, according to region, college students in Jeju are preparing for their careers more than those in Seoul-Gyeonggi province. On the other hand, students in Seoul-Gyeonggi province make social efforts to achieve their goal in comparison with the students in Jeju.

Fourth, according to major, college students of humanities perceive more career barriers than other major students regarding the lack of self clarification, the anxiety of the future, the lack of job information, conflicts with important other people. College students of humanities and natural sciences feel the difficulty with interpersonal relations and college students of natural science feel the lack of interest.

Fifth, as the academic's year goes up, college students feel much more career barriers regarding the activity of information gathering and social efforts to achieve their goal. In necessary tools preparation they showed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order of senior>junior>freshman> sophomore.

Sixth, the study did not show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all the analysis factors but an age.

In conclusion, the career barriers the college students perceive are different in sub-factors, gender, year, and major. And the same is true for the effect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refore, counselors should serve not unified career counseling but differential intervention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students. At the same time, counselors should help students not to feel frustration and depression, and rather enhance their self-esteem and confidence.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in terms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revious counseling session in Jeju have ignored relatively.



부 록

<부록 1> 설문지 56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고 귀중한 시간에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이 연구를 위해 귀하의 의견을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각 질문에 귀하가 평상시에 생각하시던 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진 문항이 있을 경우 귀하께서 애써 작성해주신 귀한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모두 무기명으로 통계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년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강운심드림
(연락처 : 010-5662-7189, yskang73@hanmail.net)

★ 다음은 여러분의 인적사항입니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3. 전공계열
① 인문사회계열 ()
② 자연공학계열 ()
③ 예체능계열 ()
4. 대학소재 지역
① 제주지역 () ② 서울경기지역()

1. 다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하는 문제(장애)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이 문제(장애)들에 대해 당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유부단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1	2	3	4
2 나는 인간관계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1	2	3	4
3 앞으로 나의 진로는 부모님의 반대나 간섭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1	2	3	4
4 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앞으로 내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때, 그 일이 점차 지루해 질 것이다.	1	2	3	4
6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나의 취업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1	2	3	4
7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1	2	3	4
8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나의 신체적 조건이 나쁘다.	1	2	3	4
9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	1	2	3	4
10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1	2	3	4
11 나는 일하는데 필요한 주장성이 부족하다.	1	2	3	4
12 나는 직장생활에서 일과 관련된 어려움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1	2	3	4
13 나는 부모님이나 이성친구가 나의 진로선택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1	2	3	4
14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1	2	3	4
15 앞으로 내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때, 그 일에 흥미가 점점 없어질 것 같다.	1	2	3	4
16 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막연한 불안함이 있다.	1	2	3	4
17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1	2	3	4
18 나는 건강 때문에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1	2	3	4
19 나는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한다.	1	2	3	4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나는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다.	1	2	3	4
21	나는 무엇인가를 결정 내리고 난 후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22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쉬울 것이다.	1	2	3	4
23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1	2	3	4
24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1	2	3	4
25	나는 흥미 있는 일이나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 없다.	1	2	3	4
26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1	2	3	4
27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1	2	3	4
28	신체적인 열등감이 나의 직업선택이나 계획에 영향을 준다.	1	2	3	4
29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에 있어서 남들에게 뒤쳐질까봐 걱정이 된다.	1	2	3	4
30	나는 취업이 잘 안될 것이다.	1	2	3	4
31	나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1	2	3	4
32	나는 앞으로 직장생활을 할 때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1	2	3	4
33	나는 부모님이나 집안의 기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1	2	3	4
34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 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1	2	3	4
35	내가 지금 흥미를 갖고 있는 일은 시간이 흐르면 바뀔 것이다.	1	2	3	4
36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취업에 영향을 준다.	1	2	3	4
37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1	2	3	4
38	나는 신체적인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1	2	3	4
39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를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 지장을 받을 것이다.	1	2	3	4
40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피하고 싶다.	1	2	3	4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나는 무슨 일을 하려면 몹시 긴장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	2	3	4
42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직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	2	3	4
43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 얻기가 어렵다.	1	2	3	4
44	시대 흐름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	2	3	4
45	나는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1	2	3	4

II. 다음은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행동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나타난 행동들을 지난 몇 주(4주 이내) 또는 몇 개월(6개월 이내) 동안 실제 자신이 수행한 정도에 적합하게 V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	2	3	4
2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	2	3	4
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	2	3	4
4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보았다.	1	2	3	4
5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혹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책자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보았다.	1	2	3	4
6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그 같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1	2	3	4
7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 프로그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다.	1	2	3	4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1	2	3	4
9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1	2	3	4
10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있다.	1	2	3	4
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다.	1	2	3	4
12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원이나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1	2	3	4
13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있다.	1	2	3	4
14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1	2	3	4
15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	1	2	3	4
16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1	2	3	4
17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취업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18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